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의 · 의결

안전번호 제2013 - 46 - 207호 (사건번호 : 201310조사053)

안 건 명 SK텔레콤(주)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SK텔레콤(주)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1
대표이사 하성민

의결연월일 2013. 12. 27.

주 문

1. 피심인은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3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피심인은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등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피심인은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피심인은 과징금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 가. 금 액 : 56,000,000,000원
 - 나. 납부기한 : 과징금 납부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기초 사실

1. 일반현황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27,237천명으로 전체 시장의 50.1%(13.10월말 기준)를, 매출액은 12조 2,990억원(12.12월말 기준)으로 52.5%를 점유하고 있다.

<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및 매출액 현황 >

(단위 : 천명, 십억원)

구 분	SKT	K T	LGU ⁺	합 계
가입자수 (점유율, %)	27,237 (50.1)			
매 출 액 (점유율, %)	12,299 (52.5)			

※ 출처 : 사업자 제출자료

2. 단말기 보조금 규제 연혁

가. 보조금의 원칙적 금지('00.6월 ~ '06.3.26)

정부는 중고 단말기 양산·외화 유출 등 단말기 보조금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00.6월부터 이용약관에 보조금 금지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이후에도 장려금 신설·증액,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보조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관행이 근절되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여 '03.3.27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였다.

〈 관련 조항 〉

※ 舊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금지행위)제1항

5.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그 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통신단말 장치의 구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행위. 다만,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및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보조금 예외 허용('06.3.27 ~ '08.3.26)

이통사들은 보조금 지급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번호이동 및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여, 사업자 변경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 가입자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발생시켰다. 이에 기존 가입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06.3.27일부터 2년간 18개월 이상 가입자와 신규서비스에 대해 예외적으로 보조금을 허용토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다.

〈 관련 조항 〉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의 지원 금지 등)

- ① 전기통신사업자가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역무의 이용에 필요한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구입가격보다 낮게 판매하거나 현금지급, 가입비의 보조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원”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구입비용의 지원일을 기준으로 같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의 이용기간이 연속하여 18개월 이상인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다만, 그 지원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1회에 한한다.
 2. 기간통신역무를 개시한 날부터 6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기간통신역무의 이용자에게 지원하는 경우
-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지원의 기준 및 한도 등(이하 이 조에서 “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원기준의 시행일로부터 30일 전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이를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고한 지원기준과 다르게 지원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SKT의 舊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35조(단말기 보조금 지급)

- ① 회사는 가입자에게 일체의 단말기 구입비용(단말기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없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제36조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단말기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보조금의 원칙적 허용 및 부당한 차별 규제('08.3.27 ~ 현재)

'08.3.27일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5가 일몰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이통 3사는 이용약관에 의무약정제와 연계된 보조금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다.

〈 관련 조항 〉

※ SKT의 이동전화 이용약관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 제36조(약정기간 설정) ①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제37조(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 35 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개통이력이 없는 신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지급행위가 약관 위반, 이용자 차별 등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재 가능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후 5회('10.9월, '11.9월, '12.12월, '13.3월, '13.7월)에 걸쳐 이통3사가 이용자들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행위와 관련,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 이익”¹⁾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²⁾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은 위법하다고 판단³⁾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10. 9.24일 ’09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188.8억원의 과징금(SKT 114.8억원, KT 48억원, LGU+ 26억원)을 부과, ‘11.9.19일에는 ’11년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10년과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136.7억원의 과징금(SKT 68.6억원, KT 36.6억원, LGU+ 31.5억원)을 부과, ‘12.12.24일에는 SKT 22일, KT 20일, LGU+ 24일의 신규 모집금지 등과 함께 총 119억원의 과징금(SKT 68.9억원, KT 28.5억원, LGU+ 21.5억원)을 부과, ‘13.3.14일에는 시정명령 등과 함께 총 53.1억원의 과징금(SKT 31.4억원, KT 16.1억원, LGU+ 5.6억원)을 부과, ‘13.7.18일에는 KT 7일의 단독 신규 모집금지 등과 함께 총 669.6억원의 과징금(SKT 368.8억원, KT 191.5억원, LGU+ 97.2억원)을 부과하였다.

3. 이동전화 시장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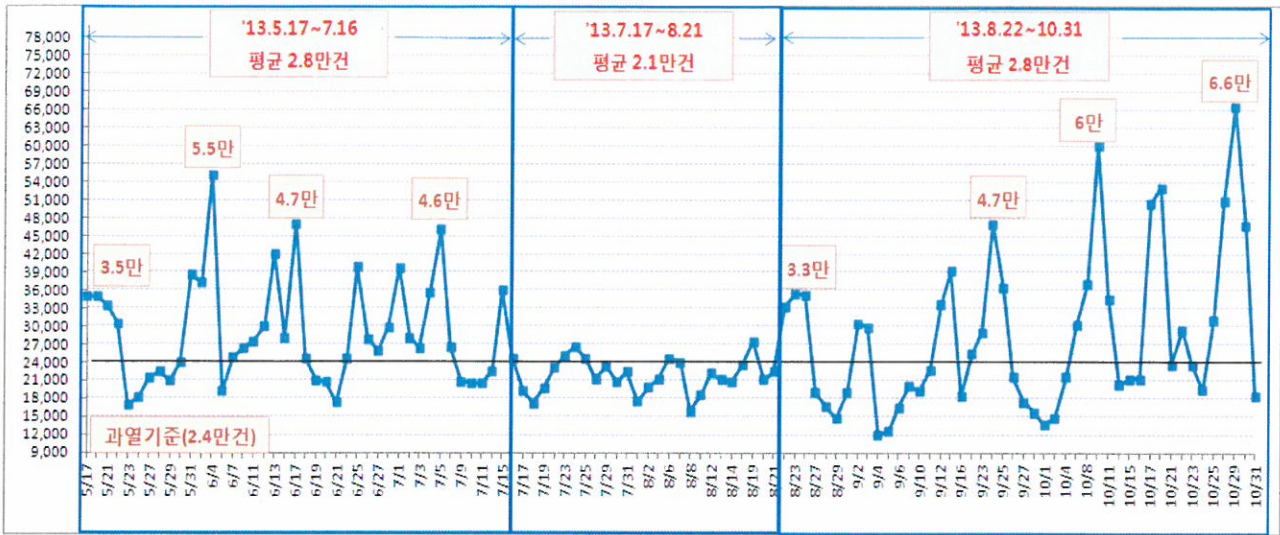
‘13.5.17~10.31. 기간 중 시장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일평균 번호이동 가입자수(이하 MNP)는 평균 2.7만 건으로 과열기준(일평균 2.4만 건)을 초과하였다.

1)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 :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단말기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다른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 고려

3) 다만,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구형 단말기의 재고 소진을 위한 단말기 보조금은 사회통념상 정상적 상관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예외적으로 적법하다고 인정

< 번호이동 가입자수 추이 >



'13.5.17~7.16. 기간에는 사실조사 중에도 MNP가 평균 2.8만 건을 기록하는 등 시장이 과열된 양상을 보이다가, '13.7.17~8.21. 기간에는 '13.7월 이통 3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 영향으로 MNP 평균 2.1만건으로 다소 안정된 시장상황이 전개되었으나, 또다시 8.22일에 3.3만건의 번호이동을 기록하면서 4.7만건(9.24일), 6만건(10.10일), 6.6만건(10.29일)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과열된 양상을 나타냈다.

특히, 과열기간 중에는 심야시간대 온라인 상에서 스팟성 할인 판매를 하거나 주말에 롯데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대형 유통점 중심으로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였다.

II. 사실조사 결과

1. 행위사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은 '13.10.23일부터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피심인의 본사 및 전국 주요권역 유통망을 현장조사 하였다. '13.5.17~10.31. 기간 중 '13.7.17~8.21.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하 “조사대상 기간”)의 신규·기변 가입 건에 대해 영업정책·보조금 지급 수준·이용자 차별 여부 등을 현장 수집자료, 전산자료, 대리점 단가표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동안 수시로 마케팅 영업정책을 수립하여 지역본부 및 지점 등에 전파하였으며, 지역본부(지점 포함)는 단말기별로 자체 리베이트 정책을 추가하여 대리점에 정책서를 배포하였고, 대리점은 자체 펀딩능력을 고려한 최종 단가표를 작성하여 대리점과 사적 계약 관계에 있는 판매점에 배포하였으며, 판매점은 단가표를 기준으로 이용자에게 단말기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며 판매하였다.

피심인은 조사대상 기간동안 목표달성과 번호이동 가입자의 이탈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마케팅 비용을 지출해 왔으며, 특히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차별적 보조금을 지급하여 시장과열을 유발하였다.

2. 조사 대상 건수

조사대상 기간 피심인의 유통망에서 단말기를 구매한 전체 가입자 중 신규 가입 134,179건(번호이동 85,876건, 일반 48,303건)⁴⁾과 기기변경 가입 60,974건을 포함하여 총 195,153건을 분석⁵⁾⁶⁾하였으며, 단말기는 총 54개 기종이었다.

〈 조사대상 건수 〉

(단위 : 건)

구 분	신규		기기변경	합 계
	번호이동	일 반		
SKT	85,876	48,303	60,974	195,153

※ 평일 개통 기준으로 조사대상 건수 분석

4) 신규 가입자는 일반(010)과 번호이동(MNP : Mobile Number Portability) 가입자로 구성되어 있음

5) 단말기 구매없이 이동전화 서비스에 가입한 중고폰 개통건과 선불요금제 가입건, 태블릿 PC 및 무선인터넷 모뎀 가입건 그리고 피쳐폰(실버폰) 개통건 및 2G 서비스 가입건에 대해서는 분석대상에서 제외

6) 전체 분석대상 건수 195,153건 중 30.4%은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보조금 지급 내용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보조금 지급자료가 불일치하였다.

3. 보조금 차별

가. 기간별(일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피심인이 한 가입자당 지급한 평균 보조금은 421천원이며, 평균 출고가는 841천원으로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이하 '보조율')은 평균 50.1%였다. 일별 평균 보조금은 최소 297천원에서 최대 565천원으로 그 차별 정도가 심하게 나타났다.

〈 출고가 대비 보조금 비율 추이(일별) 〉

(단위 : 천원)

구 분	평균 출고가	평균 보조금	보조율
2013-05-20	799	353	44.2%
2013-05-21	824	374	45.4%
2013-05-22	821	361	44.0%
2013-05-23	819	365	44.6%
2013-05-24	812	377	46.4%
2013-05-27	782	312	39.9%
2013-05-28	824	361	43.8%
2013-05-29	814	353	43.4%
2013-05-30	775	304	39.2%
2013-05-31	775	297	38.4%
2013-06-03	780	303	38.9%
2013-06-04	811	310	38.3%
2013-06-05	901	543	60.2%
2013-06-07	772	427	55.4%
2013-06-10	807	495	61.4%
2013-06-11	792	513	64.8%
2013-06-12	837	554	66.3%
2013-06-13	830	487	58.6%
2013-06-14	814	466	57.3%
2013-06-17	803	378	47.0%
2013-06-18	751	440	58.6%
2013-06-19	793	402	50.8%
2013-06-20	838	446	53.3%
2013-06-21	847	474	56.0%
2013-06-24	842	439	52.2%
2013-06-25	850	502	59.1%
2013-06-26	826	492	59.6%
2013-06-27	883	553	62.7%
2013-06-28	857	533	62.2%
2013-07-01	826	330	40.0%
2013-07-02	804	346	43.1%
2013-07-03	829	346	41.8%
2013-07-04	821	335	40.9%

구 분	평균 출고가	평균 보조금	보조율
2013-07-05	807	399	49.4%
2013-07-08	804	386	48.1%
2013-07-09	814	431	53.0%
2013-07-10	866	421	48.7%
2013-07-11	804	459	57.1%
2013-07-12	861	504	58.5%
2013-07-15	800	370	46.2%
2013-07-16	860	525	61.0%
2013-08-22	807	395	49.0%
2013-08-23	840	335	39.9%
2013-08-26	841	305	36.3%
2013-08-27	854	342	40.0%
2013-08-28	853	350	41.1%
2013-08-29	809	355	43.9%
2013-08-30	812	412	50.8%
2013-09-02	832	328	39.4%
2013-09-03	869	375	43.2%
2013-09-04	872	453	52.0%
2013-09-05	879	444	50.6%
2013-09-06	840	488	58.1%
2013-09-09	871	429	49.3%
2013-09-10	868	468	53.9%
2013-09-11	851	467	54.9%
2013-09-12	860	455	53.0%
2013-09-13	867	464	53.5%
2013-09-16	837	466	55.7%
2013-09-17	815	444	54.5%
2013-09-23	882	400	45.4%
2013-09-24	870	547	62.9%
2013-09-25	879	524	59.7%
2013-09-26	890	494	55.5%
2013-09-27	873	442	50.6%
2013-09-30	886	399	45.1%
2013-10-01	907	355	39.2%
2013-10-02	892	328	36.8%
2013-10-04	847	386	45.7%
2013-10-07	844	414	49.1%
2013-10-08	849	475	56.0%
2013-10-10	847	407	48.1%
2013-10-11	841	473	56.3%
2013-10-14	857	354	41.3%
2013-10-15	888	426	48.0%
2013-10-16	865	415	48.0%
2013-10-17	897	403	45.0%
2013-10-18	919	425	46.3%
2013-10-21	880	532	60.5%
2013-10-22	901	565	62.7%
2013-10-23	890	465	52.3%
2013-10-24	867	435	50.3%

구 분	평균 출고가	평균 보조금	보조율
2013-10-25	875	307	35.1%
2013-10-28	888	309	34.8%
2013-10-29	913	327	35.9%
2013-10-30	901	413	45.9%
2013-10-31	875	474	54.2%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일평균 금액임

나. 가입형태별 보조금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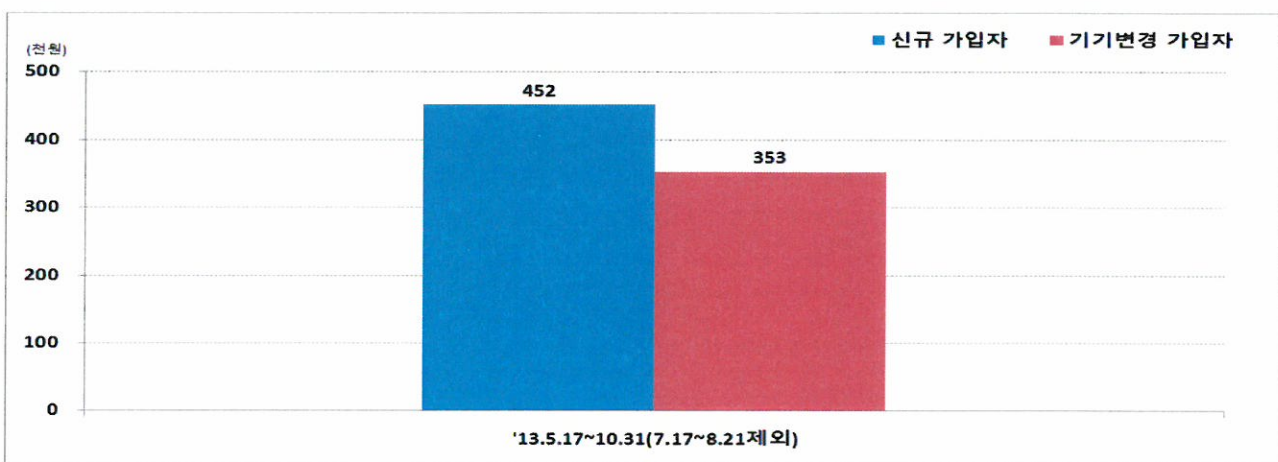
조사대상 기간 중 신규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452천원이며, 신규 가입자 내에서도 번호이동 가입자는 평균 보조금을 491천원 지원한 반면 일반 가입자는 383천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기변경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353천원으로 신규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보다 매우 낮았는데, 이는 타 사업자의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데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였다.

〈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의 보조금 추이 비교 〉

(단위 : 천원)

구 분	신규			기기변경(B)	보조금차이 (A-B)
	전체(A)	번호이동	일 반		
SKT	452	491	383	353	99

※ 보조금 금액은 평균 금액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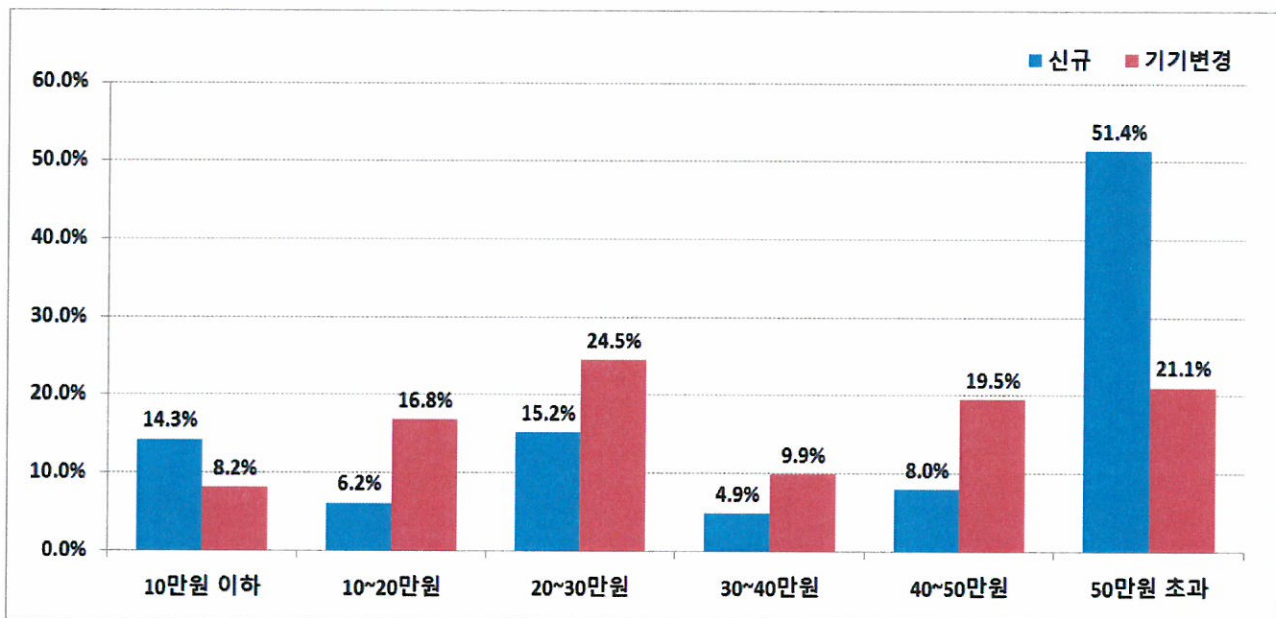
보조금 수준별로 가입자 분포를 살펴보면, 3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은 신규 가입자는 64.3%를 차지하고 기기변경 가입자는 50.5%를 차지

하고 있으며, 그중 50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받은 신규 가입자는 51.4%인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21.1%로 신규 가입자와 기기변경 가입자 간의 보조금 차별이 크게 나타났다.

〈 보조금 지급수준별 신규 및 기기변경 가입자 분포 비교 〉

(단위 : 건)

구 분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신규	19,172	8,277	20,402	6,592	10,753	68,983
(점유율)	14.3%	6.2%	15.2%	4.9%	8.0%	51.4%
기기변경	4,995	10,260	14,961	6,062	11,879	12,817
(점유율)	8.2%	16.8%	24.5%	9.9%	19.5%	21.1%



다. 연령대별 보조금 차별

피싱인의 가입자들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0대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은 359천원으로 가장 낮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70대 이상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도 364천원에 그친 반면 30대 가입자는 450천원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었다. 또한 20대 가입자의 평균 보조금도 446천원으로, 20~30대 가입자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조금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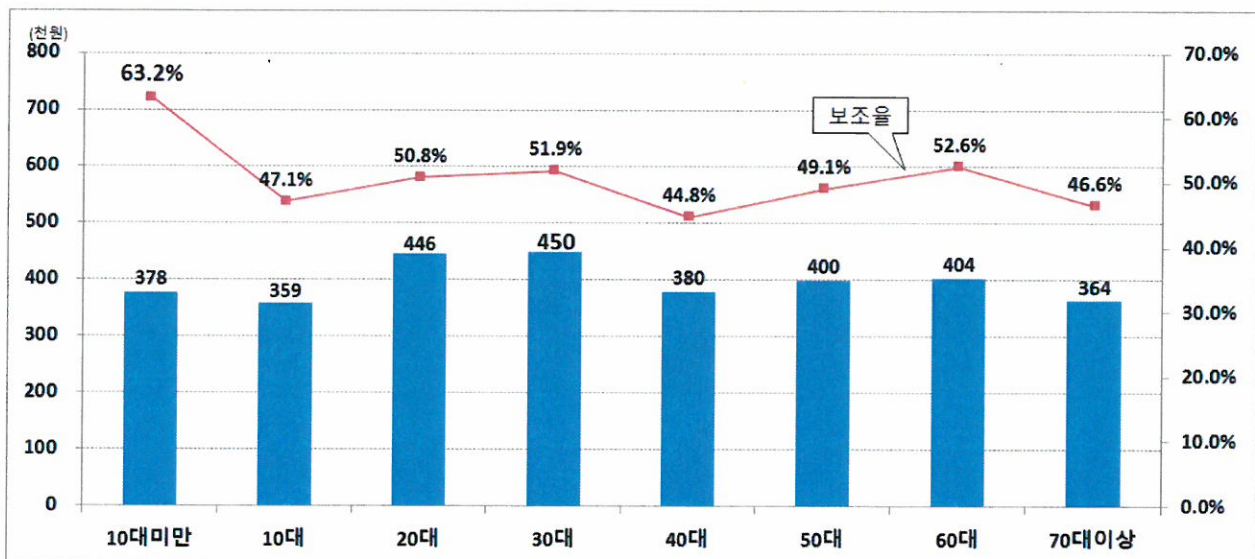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연령대별 보조금 수준은 378~404천원으로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연령대별 보조금 지급 수준 및 비율 〉

(단위 : 천원)

구분	10대 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출고가	599	762	877	867	849	815	769	782
보조금	378	359	446	450	380	400	404	364
보조율	63.2%	47.1%	50.8%	51.9%	44.7%	49.1%	52.6%	46.6%

※ 출고가 및 보조금 금액은 연령대별 평균 금액임



라. 단말기 간 보조금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주요 6개 LTE 단말기 기종에 대한 보조금 수준을 살펴 본 결과, 6개 기종 모두 평균 40만 원 이상의 높은 보조금이 지급되었다. 또한 단말기 간 보조금 차별뿐만 아니라 동일기종의 단말기 간에도 보조금 차별이 크게 나타났는데, G2는 최대 139천원, 갤럭시노트2는 최대 133천원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 동일기종 단말기의 보조금 차이 〉

(단위 :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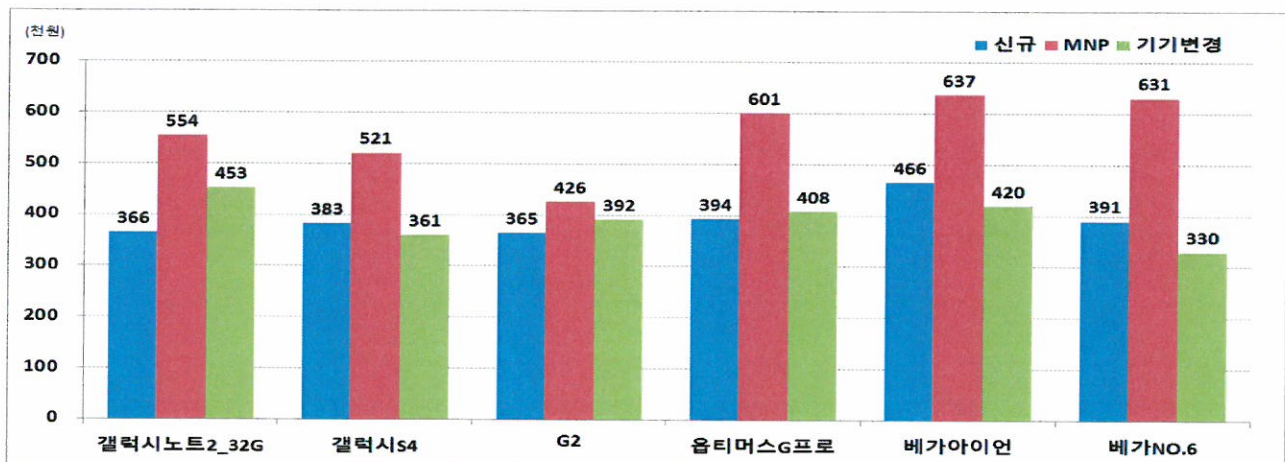
모델명	폰네임	평균 출고가	보 조 금			
			평 균	보조율	최 대	최 소
SHV-E250S_32G	갤럭시노트2_32G	990	488	49.3%	133	0
SHV-E300S	갤럭시S4	899	421	46.8%	112	0
LG-F320S	G2	954	402	42.1%	139	0
LG-F240S	옵티머스G프로	939	537	57.2%	122	0
IM-A870S	베가아이언	829	556	67.1%	115	0
IM-A860S	베가NO.6	778	550	70.7%	101	0

또한 주요 단말기를 가입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이 높게 지급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옵티머스G프로, 베가아이언, 베가NO.6 기종의 경우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자 간 차별이 매우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동일기종 단말기의 가입형태별 보조금 추이 〉

(단위 : 천원)

모델명	폰네임	평균 출고가	신 규		기기변경
			010신규	MNP	
SHV-E250S_32G	갤럭시노트2_32G	990	366	554	453
SHV-E300S	갤럭시S4	899	383	521	361
LG-F320S	G2	954	365	426	392
LG-F240S	옵티머스G프로	939	394	601	408
IM-A870S	베가아이언	829	466	637	420
IM-A860S	베가NO.6	778	391	631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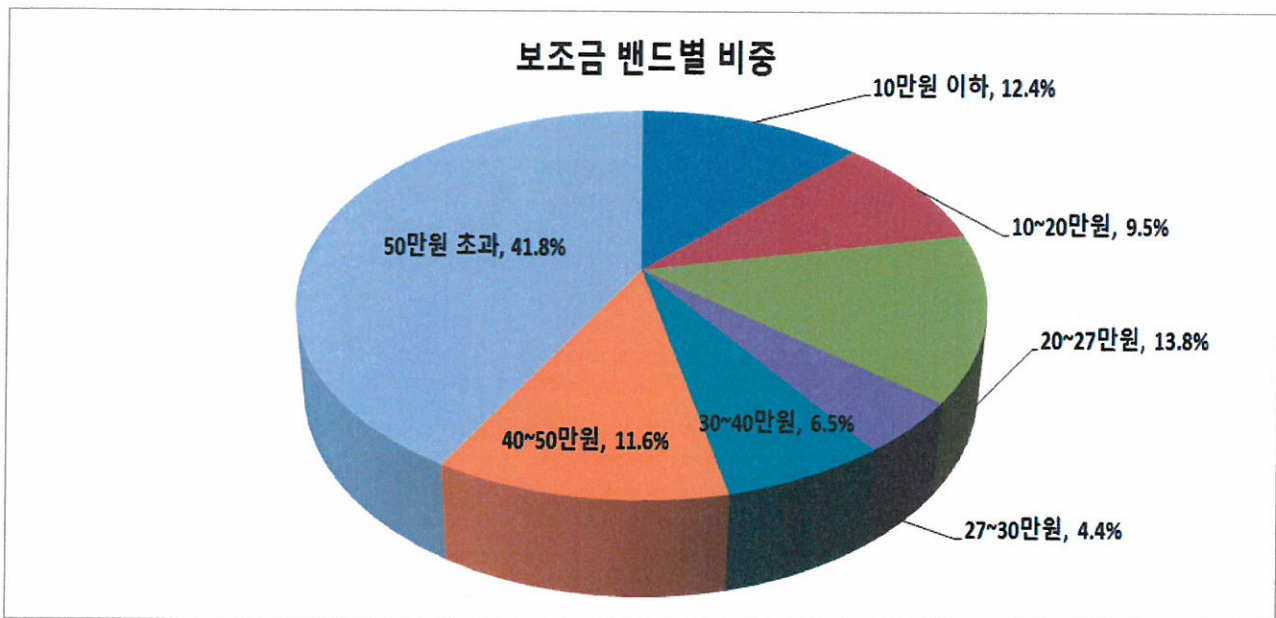
마. 보조금 밴드별 차별

조사대상 기간 중 분석대상 가입자를 보조금 밴드별로 분석한 결과, 40만원 초과 보조금을 지급받은 가입자가 53.4%인데 반해 10만원도 받지 못한 가입자가 12.4%로 가입자 간 보조금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조금 밴드별 가입자 비중 〉

(단위 : 명)

구 분	10만원 이하	10~20만원	20~27만원	27~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만원 초과	합 계
가입자	24,167	18,537	26,844	8,519	12,654	22,632	81,800	195,153
비 중	12.4%	9.5%	13.8%	4.4%	6.5%	11.6%	41.8%	100.0%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은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

〈 부당한 이용자 차별 규제 근거 조항 〉

- ◆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5.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① [별표 4] 5. 마.** 부당한 이용자 차별과 관련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번호, 전기통신설비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을 다른 이용자에 비하여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2. 판단기준

‘10.9.24일 방송통신위원회 심결시 확정된 위법성 판단기준에 따라, 가입자 모집 비용이 그 가입자로부터 예상되는 이익을 초과하면 다른 가입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있으므로,

①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¹⁾과 ② 가입자 1인당 평균 제조사 장려금에서 조성된 단말기 보조금²⁾의 합산액인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 지급은 위법

1) 가입자 1인당 월평균 예상이익 ×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 보조금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財源이 결합되어 조성되고, 제조사 財源은 타 이용자에 대한 비용전가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

다만,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행에 속하는 합리적 경영활동으로 볼 수 있는 출시 후 20개월이 경과된 재고소진 목적의 보조금³⁾은 적법하다고 인정

3) ‘12년 이통 3사 가입자의 단말기 평균 교체주기 20개월(SKT는 20개월, KT는 21개월, LGU+는 18개월로 평균 20개월)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기간 중 개통일 기준으로 20개월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는 재고 단말기로 간주

3. 위반율

가. 전체 위반율

피심인의 전체 조사대상 195,153건 중 부당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건수가 125,605건으로 전체 위반율은 64.3%였으며, 평균 보조금은 421천원이었다.

〈 전체 위반율과 평균 보조금 〉

(단위 : 건, 천원)

구분	조사대상건수	위반건수	위반율	평균보조금
SKT	195,153	125,605	64.3%	421

나. 가입형태별 위반율

번호이동 위반율은 72.1%로 010신규 가입의 위반율 58.5% 및 기기변경 위반율 57.9%에 비해 10% 이상 높았으며, 타 사업자의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더 많은 보조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입형태별 보조금 지급 수준도 최대 138천원 차이가 발생하는 등 가입형태별 이용자 차별이 심하게 나타났다.

〈 가입형태별 평균 보조금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평균 출고가	평균 보조금	위 반 율
전 체	841	421	64.3%
010신규	775	383	58.5%
번호이동	842	491	72.1%
기기변경	893	353	57.9%

다. 연령대별 위반율

피심인은 연령대별로 53.5~67.9%의 높은 위반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평균 보조금도 모든 연령대에서 27만원을 초과하여 보조금 지급기준을 위반하였다.

〈 연령대별 평균 보조금 수준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10대미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전체
평균보조금	378	359	446	450	380	400	404	364	421
위반율	58.7%	54.1%	67.0%	67.9%	58.5%	62.9%	61.4%	53.5%	64.3%

라. 주요 단말기별 위반율

주요 단말기 6개의 평균 보조금 모두 40만원 이상으로 보조금 지급 기준인 27만을 크게 초과하였고, 위반율 또한 64.6~8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옵티머스G프로의 경우 평균 보조금은 537천원, 위반율은 84%인데 반해 G2의 경우 평균 보조금 402천원, 위반율 64.6% 등 단말기 간 보조금 및 위반율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 주요 단말기별 보조금 수준 및 위반율 현황 〉

(단위 : 천원, 건)

구분	평균 출고가	평균 보조금	조사건수	위반건수	위반율
갤럭시노트2_32G	990	488	30,267	22,163	73.2%
갤럭시S4	899	421	27,740	19,278	69.4%
G2	954	402	7,951	5,138	64.6%
옵티머스G프로	939	537	11,864	9,969	84.0%
베가아이언	829	556	7,776	6,513	83.7%
베가NO.6	778	550	8,007	6,053	75.5%

마.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조사대상 자료 중 위반건수 125,605건에 대한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⁷⁾을 살펴보면, 60~70만원대가 전체 대비 24%로 가장 많은 위반건수가 분포하고 있었으며, 보조금을 50만원 이상 지급받은 비율도 전체 대비 65.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위반건수의 보조금 구간별 분포율 〉

(단위 : 건)

구 분	27~30 만원	30~40 만원	40~50 만원	50~60 만원	60~70 만원	70~80 만원	80~90 만원	90~100 만원	100만원 초과	합 계
위반 건수	8,519	12,654	22,632	24,976	30,130	19,484	4,300	2,427	483	125,605
분포율	6.8%	10.1%	18.0%	19.9%	24.0%	15.5%	3.4%	1.9%	0.4%	100.0%

4. 소결

피심인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제공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 4] 5호 마목 1)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시정조치 명령

1. 금지행위의 중지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이동전화 서비스 신규 가입자 및 기기변경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7) 위법성 판단기준인 보조금 27만원을 초과하는 위반건수에 대한 분포율임

2.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피심인의 사업장, 대리점 등에 13일간(휴업일 제외) 공표하여야 한다. 이때, 공표크기·문안 및 내용 등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3.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2호에 따라 각 시정명령 이행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V. 과징금 부과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기준금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와 같은 법 시행령 46조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피심인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과 연평균 매출액 대비 부과 상한액과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다.

가. 과징금 부과 상한액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위(이용자이익 침해행위)는 위반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의 1/100이 부과 상한액으로(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별표 5] I. 2호),

이에 따른 피심인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은 1,225억 원이다.

나. 기준 과징금

평균 위반율이 64.3%임을 고려하여 1.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이에 따른 피심인의 기준 과징금은 375억 원이다.

2. 필수적 가중

최근 3년간 부당한 차별적 보조금 지급행위로 과징금 등의 제재조치를 4회('11.9월, '12.12월, '13.3월, '13.7월) 받았으며, 이번 위반행위가 5회째 이므로 3회째부터 10%씩 가산하여 기준 과징금의 30%를 가산한다.

3. 추가적 가중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보조금 지급내용과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보조금 지급자료와의 불일치율이 30.4%임을 고려하여 15%를 가산한다.

4. 과징금의 결정

이에 따라 피심인의 과징금은 560억원이다.

VI.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위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부터 제27조에 따라 동 명령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동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VII. 결론

상기 피심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2013. 12. 27.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위 원 장

이 경 재



부위원장

김 충 식



위 원

홍 성 규



위 원

김 대 희



위 원

양 문 석

